

CJ제일제당, 미래 식품·바이오 시장 본격 공략

“고려대와 산학협력…친환경 소재 공장 준공”

〈생분해 소재 컴파운딩〉

미래 인재 육성 및 공동연구 진행
생분해 소재 컴파운딩 생산 시작
“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 목표”
CJ바사, 면역항암물질 2상 승인

CJ제일제당이 식품과 바이오 분야의
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.

먼저 20일 고려대와 맞춤형 인재 육
성 및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
열고, 미래 식품·바이오 분야 전문가
육성에 나섰다.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
대 학생들은 식품·바이오 분야 전문기
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
게 된다. 공동 연구 기회, 경영진 및 각
분야 산업 전문가의 교과 연계 비즈니스
특강, 각종 기술 세미나 등이 대표적
이다. 또 3, 4학년 학생들에게 정기적
인 산업 현장 실습 및 산업체 연수 등을
제공한다. 앞서 12일에는 고려대 취업
준비생을 대상으로 CJ제일제당의 사업
소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주제로 바
이오 인사담당 임원 특강을 진행한 바
있다.

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“이번 협약을
통해 우수인재 육성과 채용, 산학공동연
구 등에 있어 더욱 굳건한 산학협력 관
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양 기관이
가진 최상의 동력이 상호 시너지를 낼
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했다.

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“학생들
이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
경험을 쌓고 직업을 탐색하며 미래를 그
려 나가는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”
며 “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의
도약을 위해 최고 인재 양성과 혁신적
조직문화 구축에 힘쓸 것”이라고 했다.



맞춤형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(위 사진 오른쪽)와 정진택 고려대 총장, CJ HDC 바이오솔이 충북 진천 광혜원지방산업단지에서 준공한 생분해 소재 컴파운딩 공장 전경.

사진제공 | CJ제일제당

●바이오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

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바이오 사업
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.
바이오 부문은 농업·식품 부문인 그린
바이오, 환경·에너지 부문인 화이트바
이오, 의료·제약 부문인 레드바이오 등
3개의 축으로 운영 중이다.

화이트바이오의 경우, CJ제일제당과
국내 고분자 컴파운딩 리딩업체인 HDC
현대EP가 손잡고 설립한 합작법인인 C

J HDC 바이오솔이 주도하고 있다. 19일
충북 진천 광혜원지방산업단지에서 생
분해 소재 컴파운딩 공장 준공식을 열고
본격 생산을 시작했다. 240억 원의 사업
비를 투자해 연면적 1만2060㎡ 규모로
구축했다.

컴파운딩은 두 개 이상의 플라스틱 소
재를 섞어 용도에 맞게 생산하는 공정을
말한다. CJ제일제당이 전 세계에서 유
일하게 대량 상업생산 중인 aPHA(해양

생분해)를 비롯해 PLA(산업 생분해), P
BAT(토양 생분해), 셀룰로오스 등의 품
목을 활용해 연간 1만1000톤에 달하는
생분해 소재 컴파운딩을 진행할 수 있
다. 진천공장을 거점으로 친환경 소재
컴파운딩 시장 선점·확대에 나선다. 이
를 위해 생활용품 포장재와 화장품 용기
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 쓰이는 소재부터
자동차 부품 소재 등 생분해 소재 제품
개발에 나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.

최은석 대표는 “세계적인 탄소중립
흐름 속에 ‘플라스틱 순환 경제’의 선순
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”며 “C
J HDC 바이오솔의 우수한 제조 역량이 글
로벌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지속 가능한
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”이
라고 했다.

레드 바이오의 경우, 자회사 CJ바이
오사이언스가 주축이 돼 사업을 키우고
있다. 최근 CJ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
식품의약국(FDA)에 제출한 마이크로바
이오 면역항암치료제 CJRB-101의 1·
2상 임상시험계획서가 승인돼 눈길을
끈다. CJRB-101은 CJ바이오사이언스
의 신약후보물질로, CJ제일제당이 구축
한 균주를 기반으로 면역학적 검토를 통
해 개발됐다. 임상은 CJRB-101의 안전
성 및 예비적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1·
2상 연구로 진행된다. 미국과 한국의 다
수 임상시험 기관에서 실시하며, 1상
에서 최대 46명, 2상에서 최대 120명을 모
집한다.

회사 측은 “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
도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 미국과 한국
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할 계획”이라
며 “예상보다 빠르게 FDA 임상 승인이
나면서 신약 연구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
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했다.

정정욱 기자 jiyajdonga.com

11번가, ‘라이브11 오픈 플랫폼’ 론칭
“판매자 누구나 쉽게 라이브 방송 가능”

11번가는 셀러(판매자) 누구나 ‘라이브11’에서 제품
판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‘오픈 라이브’ 서비스를 선
보인다고 25일 밝혔다. 기존엔 11번가와 협의한 셀러,
브랜드를 중심으로 방송을 자체 기획했다면, 이제는
11번가에 입점한 개인 셀러들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
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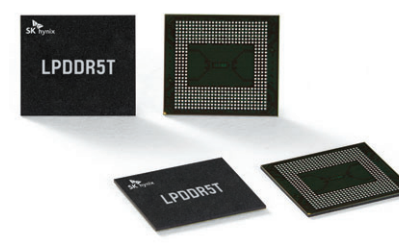
새롭게 변화한 라이브11은 그동안 하루 4~6회 진행
해 온 기획 방송에 셀러들의 오픈 라이브가 추가되는 방
식으로 확대된다. 라이브11 탭 하단에 ‘푸드채널’, ‘패션
채널’, ‘IT채널’, ‘키즈채널’ 등 각 카테고리별 큐레이션
영역이 신설된다. 최근 조회, 구매, 장바구니에 담은 상
품을 기반으로 관심 방송을 개인화 추천해준다.

라이브11 권한 신청 후 승인받은 셀러들은 매일 오전
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등록해
진행할 수 있다. 방송 전 사전 예고 페이지와 방송 배너,
그리고 방송 중 이벤트 효과 등을 원하는 대로 꾸미고
설정할 수 있다. 11번가는 라이브11 운영 노하우와 팁을
‘셀러존’ 무료 교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.

송치원 11번가 전사·성장플랫폼담당은 “라이브11이
저변을 넓혀 한층 더 확대된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
다”며 “앞으로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기
능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 확장에
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김명근 기자

SK하이닉스, 모바일용 D램 ‘LPDDR5T’ 선포



SK하이닉스가
현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 ‘LPDDR5T’ (사진)를 개
발해 고객사에 샘
플을 제공했다.

지난해 11월 공개한 ‘LPDDR5X’의 성능을 업그레이드
한 제품이다. 동작속도를 LPDDR5X보다 13% 빨라진
9.6Gbps까지 높였다. 최고속도를 구현했다는 점을 부
각하기 위해 규격명인 LPDDR5 뒤에 ‘터보’를 붙였다.
LPDDR5T는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(JEDEC)가 정한
최저 전압 기준인 1.01~1.12V에서 작동한다. 회사 측
은 속도는 물론, 초저전력 특성도 동시에 구현해낸 제품
이라고 설명했다. SK하이닉스 관계자는 “이번 신제품
을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
공급해 모바일용 D램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견고히 할
것이다”고 말했다.



하이트진로, ‘두겹상회 강남’ 시즌2 운영

하이트진로가 3월 5일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프리
미엄급으로 진화한 시즌2 버전인 ‘두겹상회 강남’ (사진)
을 운영한다. ‘어른이 놀이터’ 콘셉트의 복합문화공간이
다. 매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며 미성년자 출
입은 제한된다. 기존 ‘어른이 문방구’ 콘셉트의 굿즈와
포토 중심에서 업그레이드돼, ‘어른이 놀이터’로 활동성
을 강화한 체험형 콘텐츠가 특징이다. 고민거리를 날려
버리는 스트레스 샌드백, 어린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복
고 게임을 비롯해 골프 퍼팅, 두꺼비 잡기, 에어하키, 풋
볼링, 농구, 볼링 등을 즐길 수 있다. 이밖에도 두겹네트
포도부스, 주말 한정판 럭키박스, 소맥자격증 발급, 주
변상권 및 먹거리 연계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.

편집 | 신하늬 기자 mythuki@donga.com

“터치로 스마트홈 구현”…삼성, ‘스마트싱스 스테이션’ 출시

다양한 IoT 제품 연결 및 제어 지원
터치 한 번으로 맞춤 루틴 기능 실행
갤럭시 위치 찾기·무선 충전도 가능

삼성전자가 가전기기 간 ‘초연결’을 본
격화한다. 삼성전자는 ‘스마트싱스 스테이
션’ (사진)을 25일 국내 출시했다. 이달 초
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
전·IT 전시회 ‘CES’에서 처음 공개한 스
마트홈 허브다. 기기 간 혁신적 연결성과
편의성으로 주목을 받았다.

이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 뿐 아니라, 업
계 최신 IoT(사물인터넷) 통신 규격인 ‘매
터’(Matter)와 ‘지그비’(Zigbee)를 지원하
는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연결하고 제어
한다. 특히 제품 상단에 위치한 ‘스마트 버
튼’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스마트싱스 앱
에 설정해 둔 나만의 맞춤형 루틴 기능을
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. 라이프스타일에
최적화된 3가지 루틴을 ‘짧게 누르기’와
‘두 번 누르기’, ‘길게 누르기’ 등 터치 방식
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, 앱을 열지 않고도
루틴 실행이 가능하다.

갤럭시 위치 확인 서비스인 ‘스마트싱스
파인드’도 지원한다. 집에서 스마트폰이나



삼성전자가 집안에서의 ‘초연결’ 경험을 보다 용이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보인 스마트싱스 허브 ‘스마트싱스 스테이션’.

사진제공 | 삼성전자

태블릿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스마트 버튼
을 두 번 누르면 제품에서 울리는 소리로
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. 또 최대 15W의
무선 충전을 지원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버
즈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. 무
선 충전 시 사전에 설정한 루틴이 동시에
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품 가
격은 12만9000원이다. 전국 삼성 디지털
프라자, 삼성닷컴, 네이버, 11번가 등 온라

인 쇼핑물에서 구매할 수 있다. 삼성전자
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과 연동해 사용이
가능한 조명, 온습도센서 등 다양한 IoT
파트너 제품을 삼성닷컴에서 함께 선보일
예정이다.

●집안의 초연결 경험

삼성전자는 CES에서 ‘맞춤형 경험으로
열어가는 초연결 시대’를 선언했다. 현재
시장에 출시된 140억 개에 달하는 다양한
커넥티드 기기들을 원활하게 연결한다는
목표다. 이를 위해 DX부문에서 절반에 가
까운 임직원들이 커넥티드 기술 분야에 집
중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설명이
다.

이번에 출시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
집안에서의 초연결 경험을 보다 용이하게
구현하기 위한 기기다. 정재연 삼성전자
디바이스플랫폼센터 부사장은 “스마트싱
스 스테이션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홈을 경
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”며 “지속
성장하는 스마트홈 시장에서 다양한 기기
간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스마트싱스 스테
이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
다”고 말했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

롯데관광, 크루즈 관광 재개

롯데관광개발은 3년 8개월 만에 크
루즈관광을 재개한다. 이와 관련해
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글로
벌 크루즈 선사 코스타 크루즈와 크루
즈 전세선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
맺었다. 세계 1위 크루즈 기업인 카니
발 그룹에 속한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
루즈는 2010년 9월 동북아시아에서
는 처음으로 롯데관광개발과 손을 잡
은 이후 이번에 11번째 운항 계약을
체결했다.

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협약을 통해
6월부터 속초를 모항으로 일본 아오
모리과 오토루 등을 오가는 크루즈 전
세선 운항을 재개한다. 지난해 12월
부터 판매 중인 속초-일본 크루즈 패
키지는 한달 여 만에 2000명 이상의
예약 신청이 몰리며 인기를 얻고 있
다.

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